

참여폭 넓히고 음악 인재 발굴 중점

5월 30~31일 광주청소년음악 페스티벌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2008 광주청소년음악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오는 5월 30~31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재)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페스티벌은 청소년 음악 인재 발굴을 위한 경연 대회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너의 음악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은 특정 기획 사가 진행했던 데서 벗어나 주관 기관이 사무국을 꾸리고 음악평론가 박준호(42·전 광명음악밸리 총재 음악감독)씨를 페스티벌 총감독으로 영입,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기성곡 경연 도입 학생·직장인 참여 유도 포크 공연·도심 음악 난장 다양한 볼거리

◇끼를 발산하라-경연대회

올해 행사는 참여폭을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우선 참여 연령대를 기존의 13~23세에서 13~28세로 상향 조정 했다.

또 처음으로 기성곡 경연 방식을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창작곡 경연의 경우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 일반인의 참여가 어려웠던 게 사실. 주최측은 학생, 직장인, 음악 동아리 등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경연대회는 mp3심사, 실기심사 등을 겨쳐 5월 30·31일 모두 18팀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이며 예선은 오는 5월 18일 광주영상예술센터에서 열린다.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6일까지며 창작곡 경연 대상 수상팀에 500만원을 수여하는 등 1천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주최측은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수상팀에 대한 프로모션과 음반 제작 지원 등

사후 지원도 올해는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풍성한 불거리-다양한 음악 공연

행사 기간 중에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광주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인기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됐다.

첫날인 5월 30일에는 '광주 포크 30년-트리뷰트 김정호'(가칭) 공연이 열린다. 광주를 빛낸 대중음악인을 기념하는 코너를 만든다는 취지 아래 준비된 공연으로 '하얀 나비' 등을 부른 광주 출신 가수 김정호에 대한 재조명 작업과 함께 지역 포크 음악인들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31일에는 인디 레이블 제작 지원팀 공연과 인기가수 축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를 연속 진행되는 '대중음악 명인 공연'(가칭)도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포



청소년 음악 축제인 2008 광주청소년음악 페스티벌이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광주청소년음악 페스티벌 모습. <광주일보 자료>

웹사이트 네이버가 선정한 '100대 명반'에 꼽힌 앨범을 발표한 뮤지션 가운데 4~5팀을 초청할 계획이며 현재 심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심 곳곳에서 음악 난장도 펼쳐진다. 5월 25일에는 옛전남도청 앞 종각공원에서, 30일에는 전남대 후문, 조선대, 종각공원에서 거리음악회가 진행된다.

또 주최측은 김대중센터 야외광장에서 노

천카페와 음반 전시장을 운영한다.

박준호(42) 총감독은 "이번 페스티벌은 청소년 음악 인재 양성이라는 기본 목표와 함께 기성곡 경연 등을 도입, 참여폭을 넓힌 게 특징"이라며 "특히 청소년 뿐 아니라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350-24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순이 바이올린 독주회 2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현순이(광주대 교수) 바이올린 독주회가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현씨는 생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작품 세계와 연주에 영향을 미쳤던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이번 연주회의 프로그램을 짰다.

레퍼토리는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던 이자이의 '바이올린 독주 소나타 2번', 프랑크가 이자이를 위해 현정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역시 이자이를 위해 현악 4중주곡을 만들기도 했던 드뷔시가 죽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이다.

서울대와 보스톤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를 거쳐 코네티컷 주립대에서 연주 전공 박사과정을 마친 현씨는 금호 현악 4중주단, 미국 유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등을 역임했다.

피아노 반주는 김정아(광주대 교수)씨가 맡는다. 문의 062-227-7442./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창록 작 '이 사람을 보라'

원봉회 남도작가 순수조명전 31일까지 자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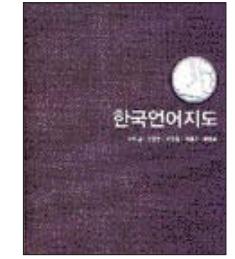
광주지역 화가들의 모임인 원봉회(회장 류재용)는 31일까지 자미갤러리에서 '남도작가 순수조명전'을 갖는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회원전에서는 김기찬, 김진곤, 문정호, 위진수, 주영남씨 등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서양화, 동양

화, 서예, 조각 등 다양한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김용우씨는 가족이 단란하게 앉아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가족 이야기 08'을, 민병희씨는 '나를 찾아가는 길'을 전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투리 한눈에 본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언어지도' 폐내

전라도 아이들이 "바꿈살이"하다가 배고파서 '강냉(냉이)' 먹었다"고 말하면 서울과 충청도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갸웃거릴 것이다. '소꿉놀이'는 지역에 따라 50여개의 사투리가 쓰이고 있어 타 지역의 방언을 쉽게 알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투리의 본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언어지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폐낸 '한국언어지도'는 국내 사투리의 지역별 특성을 지도로 그려 설명하고 있다.

지난 1978년 한국학중앙연구원(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10개년 프로젝트의 하나로 언어지도 그리기 작업에 착수했다. 이익섭·이병근(전 서울대 교수), 최명숙(서울대·전광현(단국대)·이광호(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전국을 답사하면서 153종의 사투리를 조사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그동안 책을 폐내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정년퇴임을 한 최근에야 연구 작업을 마무리 하고, 30년만에 책을 내게 된 것이다. 지역별 언어의 차이는 물론, 사회·정치·문화의 지역별 동질성과



차별성 등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수수는 충·남북, 강원 등지에서

는 옥수(肯)이,

옥수(肯)

등으로 말해 중부와 남부 지방의 특별한 방언 특성을 엿보게 한다. '벼'의 방언 분화에서도 중부와 남부로 나뉘지는 특성이 나타난다. 경기, 강원, 충남·북에서는 '벼'로 전남·북, 경·남북은 '나락'으로 뚜렷하게 표현법이 같아진다.

반면 벚씨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책을 폐내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정년퇴임을 한 최근에야 연구 작업을 마무리 하고, 30년만에 책을 내게 된 것이다.

지역별 언어의 차이는 물론, 사

회·정치·문화의 지역별 동질성과



(1720~1799)이 다산을 혜장의 스승이자 화엄의 종주인 연암 유일스님(1720~1799)에게 소개하고 유일스님은 혜장을 담을 때 다산에게 소개해 이뤄졌다.

책에는 회신 출신인 연암 유일스님과 다산 정약용, 해남 출신 애암 혜장선사(1722~1811)와 1805년 4월에 쳐을 만난 뒤 6년간 쓴 교분의 흥적을 담고 있다.

양광식 소장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학문의 도리를 다한 선각자들의 뜻을 조명하고 싶었다'며 '민중을 위한 이들의 고귀한 정신이 이어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불 거장의 만남

강진문화고전연구소

'다산과 혜장' 폐내

조선 후기 유교와 불교의 선각자들이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사이에 두고 주고 받던 시와 글을 한데 묶은 책이 발간됐다.

24일 강진문화고전연구소(소장 양광식)에 따르면 연구소는 최근 '다산(茶山)과 혜장(惠藏)'을 발간했다.

이 책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이 백련사 주지를 맡고 있던 애암 혜장선사(1722~1811)와 1805년 4월에 쳐을 만난 뒤 6년간 쓴 교분의 흥적을 담고 있다.

양광식 소장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학문의 도리를 다한 선각자들의 뜻을 조명하고 싶었다'며 '민중을 위한 이들의 고귀한 정신이 이어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판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전연악국시거리 ▶예매 1544-0600

1관 속명 (18세)

2관 10,000 BC (15세) - 디지털

3관 천일의스캔들 (15세)

4관 추격자 (18세)

5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6관 벤티지포인트 (15세)/바보 (12세)

7관 10,000 BC (15세)

8관 스텝업-더 스트리트 (15세)

9관 속명 (18세)/벤티지포인트

광주점 무료팝콘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 이프로 무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이 원할: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www.entercinema.co.kr

• 입장권 1매당 1회 1인 1회

• 온·오프라인 예매 가능

• 온·오프라인 티켓팅 가능

• 티켓팅 1회당 1회

• 티켓팅 1회당 1회